

행안부 “광양시, 순천대 지원 재검토를” ‘광주천 봄나들이’

“지방 재정 악화 우려” ... 市 “법적 하자 없다” 강행

광양시의 순천대 광양캠퍼스 조성 및 운영 지원을 놓고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광양시가 국립대학인 순천대 광양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국가 사무인 대학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 예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재정법령의 입법취지를 심본 이해해 광양시의 국립대학에 대한 포괄적 재정지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는 광양시의 순천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하

더라도,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저해 등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이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 및 다른 국립시설에 대한 과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가 국립시설에 대한 일반·포괄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남도와 광양시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양시 관계자는 “이미 법제처가 대학 지원에 대해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시는 애초 방침대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순천대는 지난 19일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 반대 세력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광양시의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 비용 지원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됨으로써 순천대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설립 추진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 10여년간 600억원을 순천대 광양캠퍼스에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50억원을 지원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광양캠퍼스 설립 허가를 유보하자 순천대는 지원받은 50억원을 지난해 말 광양시에 돌려 주었다.

제17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광주천 봄나들이’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환경단체 주관으로 열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물의 날’인 22일 광주 시청 뒤편 광주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주천 봄나들이’를 나선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천 도보 탐사와 하천 정화활동, 수생 식물 식재 등 하천체합활동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20일에는 광주시 북구 영산강 상류 용산교에서 영산강살리기 네트워크 주관으로 ‘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시·도민과 영산강유역환경청, 군 장병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해 하천정화 활동을 펼치고 환경사진 전시회를 가졌다.

전남 미분양 460여 가구 감소

전남의 미분양주택 수가 소폭 감소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총 16만2천693가구로 집계돼 1개월전인 작년 말(16만5천599가구)에 비해 2천906가구, 1.8% 줄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작년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했다.

시도별로는 전남(6천69가구)이 461가구가 줄어들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만1천415가구)가 1천380가구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경남(1만 6천311가구), 강원(1만 722가구) 각각 796가구, 509가구 감소했다. 이에 반해 충남에서는 431가구가 늘었다.

이번에 미분양주택이 줄어든 이유는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분양이 감소한 가운데 주택공사가 지방에서 일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수도권에서는 고양·시흥 등지에서 일부 물량이 팔렸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보기에 이르러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수도권의 경우 1개월새 1천397가구가 줄어 2만5천531가구가 됐으며 지방은 1천509가구가 감소해 13만7천162가구이다.

또 ‘약산’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또 2천587가구가 늘어나면서 4만8천534가구가 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하천을 살립시다” 제17회 ‘물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광주시 북구 용산교에서 참가자들이 물에 뜨는 자전거 퍼포먼스와 하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hoi@kwangju.co.kr

내일 귀국 정동영 출마 굳힐까

정세균 대표와 담판 예정

4·29 재보선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2일 귀국,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공천 문제를 담판지를 전망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정동영 전 장관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22일 귀국한 뒤, 다음주 초반 정세균 대표와의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장관은 전주 덕진 출마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세균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는 다 북귀해야 하지만 시점과 방식은 당의 필요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해,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

마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 정 대표와 정 전 장관이 면담이 이뤄진다 해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수도권 인연 부평을 출마 카드를 중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나 정 전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 전 장관 측의 최후의 의안은 “수도권 출마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회동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는 외길 수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박연차 돈, 건평씨가 이정욱에 전달”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 당시 김해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된 이정욱 열린우리당 후보를 돕기 위해 박연차 태양산업 회장의 돈을 끌어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이정욱씨는 공천 과정부터 김해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노씨를 찾아가 선거자금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으며 노씨는 2005년 4월20일 김해 봉하마을 인근 저수지 참고 주차장에서

박 회장으로 부터 현금 2억원이 든 라면상자를 건네받아 같은 날 김해관공호텔 앞에서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막바지인 같은 달 28일에도 저수지 참고 주차장에서 박 회장으로 부터 현금 3억원을 건네받아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을 이르면 주말 소환하는 등 4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수사부터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北, 軍 통신선 정상화

북한이 21일부터 군(軍) 통신선을 재개할 것이라고 20일 우리 정부에 전격 통보, 지난 9일 통신선을 차단한지 꼭 13일 만에 남북 간 연락망이 재가동된다.

북한은 지난 9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침전쟁연습이 진행되는 기

간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북남 군 통신도 차단할 것”이라며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9일부터 시행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해 이 기간에 남북 연락망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사가였고, 실제로 가동 중이던 동해지구 군 통신 3회선을 차단했다. /연합뉴스

학교 마을 도서관

김종두

그래도 웃을일이 있긴 있구나

완도 약산초에 ‘학교 마을 도서관’

광주일보사와 전남도교육청 등 후원 도서 3천여권 기증 ... 주민에 개방도

완도군 약산면 약산초등학교(교장 정병옥)에 ‘학교 마을 도서관’이 생겼다.

광주일보사와 (사)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주)NHN(네이버), 완도군, 완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완도 약산초등학교에서 학교 마을 도서관을 개관했다. (사진)

이들 기관·단체는 약산 학교 마을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 및 성인 도서 3천여 권을 기증했다. 이 도서관은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된다.

이날 개관식에 앞서 글짓기 대회, 어린이를



완도 약산초에 ‘학교 마을 도서관’ 개관.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시 설

주민들의 ‘기업유치’ 활동 더 확산돼야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기업유치에 성공해 화제다. 영광군 묘량면 주민들은 한 기업으로부터 18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9월 합성 목재 제조업체인 (주)이우드 코리아가 투자지역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대표를 만나 부지 매입 등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그 후 직접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토지 소유자를 만나 설득 작업을 벌여 3일 만에 모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예정 부지 내 묘지 이장 문제도 주민들이 나서 보름 만에 해결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토지매입에서 인·허가까지의 모든 과정이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묘량면 주민들의 이번 기업유치 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의 싹을 키웠다. 지금까지 기업이 들어서려면 주민들이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터

무니없는 요구를 하거나 온갖 구실로 기업유치를 방해해 온 사례가 많았다. 묘량 주민들의 기업유치 활동이 돋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다. 기업이 있어야 사람과 돈이 모이고,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각 지자체들이 경쟁 속에 흩어져 있는 토지 소유자를 만나 설득 작업을 벌여 3일 만에 모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예정 부지 내 묘지 이장 문제도 주민들이 나서 보름 만에 해결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토지매입에서 인·허가까지의 모든 과정이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기업유치 활동은 더욱 권장돼야 한다. 그레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기업들이 불러온다. 기업유치의 좋은 본보기가 된 묘량면 주민들의 사례가 지역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물 부족 재앙’ 남의 일 아니다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지난 1992년 유엔총회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수자원 고갈 문제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선포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이제부터는 물의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 물을 통해 녹색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물관리 정책을 통해 ‘물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제한급수를 받는 주민이 40개 시군 12만1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오랜 가뭄으로 전남 일부 도서지역은 석 달 넘게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남지방에서는 낙동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물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올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월과 5월에도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로 볼 때 물부족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물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를 가뭄시 활용하는 수자원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댐이 모자라 홍수기의 아까운 수자원을 흘려보내고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과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인식 변화다. 온 국민이 물 절약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해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물을 평평 쓴다면 머지 않아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지 모른다.

광주 상의 이승기 회장 재추대

제20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승기(57·삼능건설 회장) 현 회장이 재추대됐다. 광주상공회의소 선관위는 20일 “전체 67명의 의원중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임시의원총회에서 단독후보인 이승기 삼능건설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승기 회장은 오는 2012년 3월 7일 까지 3년 동안 광주상공회의소를 이끌게 됐다. 부회장은 김성산(금호산업 고속사업부

사장), 김홍균(남선석유 회장), 박홍석(력키산업 회장), 유희열(세화기계 회장), 이기상(대호전기 회장)씨 등 5명이 선출됐으며 상임의원은 권영주(화천기공 사장), 김규용((주)부동 회장)씨 등 20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승기 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광주 제일고등학교,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삼능건설 회장을 맡고 있고 2015년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장 후임회장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상의 화합 이끌어 지역발전 돕겠다”

이승기 회장 인터뷰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경제주체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일 실시된 광주상의 회장 선거에서 만장일치 추대를 통해 제20대 회장에 선출된 이승기(57·삼능건설 회장) 현 회장은 “상공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회원중심, 의원중심으로 상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의

전 개하겠다”며 “어려운 기업들의 실상을 파악해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경제기관체와 공동으로 지구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회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 파악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회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의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 치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F A X 02-773-9331>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회 1부 2200-612	조 사 부 2200-571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